

금강대학교! 2020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공무원 2명 최종합격!!!

- 김성연(행정학4), 오소림(행정학4) 합격의 영광 안아 -

- 2020년 지역인재추천 7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금강대학교 2명이 최종 합격했다. 본교의 김성연(행정학4), 오소림(행정학4) 학생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.
- 합격자 김성연씨는, “학교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미리 같은 과정을 경험한 분들로부터 힘이 되는 메시지를 받았고, 실질적인 도움에 감사드립니다.”고 밝혔다.
- 합격자 오소림씨는, “교내 토익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, 매 학기 개설되는 PSAT 교과목이 기본기를 다져주었습니다.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PSAT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받은 것이 도움 되었습니다.”고 말했다.
- 올해 지역인재 7급 선발에는 119개 대학에서 추천한 481명이 지원하였으며, 경쟁률은 평균 3.3대 1을 기록했다. 이 중 145명(행정 90명, 기술 55명)이 최종 합격했다.
- 합격자는 상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교해 4주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, 중앙부처에서 1년 수습 후 임용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.
- 금강대학교는 2015 3명, 2016년 3명, 2017년 2명, 2018년 2명, 2019년 1명, 2020년 2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재 7급 공무원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.

- 금강대학교는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 양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, 국가고시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정과 특강, 정기모의고사 등 집중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.